

117전 2승 코리아헌터, 오늘도 출전 준비

11경주 더 출전하면 최다 출전기록
美 최다연패 지피치피 매경주 최선
113연패 하루우라라 '꼴찌들의 별'

순위를 겨루는 스포츠에서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역시 1등이다. 하지만 때로는 치열한 경주 끝에 가장 낮은 순위를 기록한 '꼴찌'들의 이야기가 화려한 우승보다 더 깊은 여운을 줄 때가 있다. 경마에는 수없이 많은 패배를 겪으면서도 매경주 때마다 최선을 향해 달리던 멋진 꼴찌마들이 있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요즘, 자신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늘 내일의 희망을 향해 달렸던 이들 경주마들의 이야기는 많은 위로로 전해준다.



미국에서 최다 연패를 기록한 지피치피(Zippy Chippy)의 실제 이야기(왼쪽)와 승률이 2%도 되지 않지만 역대 최다 출전 기록을 도전하는 한국의 코리아헌터. 우승과는 거리가 멀지만 두 말의 도전 스토리는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마사회

● 꼴찌마 전설의 '시조' 미국의 지피치피

미국에서 최다 연패를 기록한 전설적인 꼴찌 경주마는 지피치피(Zippy Chippy)다. 1991년에 태어나 뉴욕에서 활동한 지피치피는 대부분의 경마장에서 출전이 거절될 정도로 경기력이 뒤쳐졌다. 하지만 끝까지 않고 레이스에 꾸준히 나서 미국 경마역사상 최다연패 기록을 갈아 치우며 통산 100전 100패의 기록으로 은퇴했다.

부진한 성적에도 팬들은 지피치피를 응원하기 위해 경마장을 찾았으며 매경주마다 새로 세우는 연패기록에 환호를 보냈다. 연패에도 극진한 보살핌으로 꾸준히 지피치피를 경주에 출전시킨 마주 펠릭스 몬서레이트는 "경주를 마친 지피치피는 매번 기쁜 모습으로 돌아오기에 난 언제나 실망스럽지 않다"고 밝혔다.

지피치피의 도전정신은 뉴욕타임스, 피플 등 많은 언론의 기사를 통해 소개됐

다. 지피치피는 어린이 학업동력 캠페인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했으며 그의 이야기는 동화책을 포함한 두 권의 책으로 나왔다.

● 행운의 상징 꼴찌마, 일본 하루우라라

일본의 지방경마장인 고치 경마장에서 1998년 데뷔한 하루우라라는 2004년 8월 은퇴할 때까지 113전 113연패를 기록했다. 미국의 지피치피가 부진한 성적에도 인기를 얻은 것처럼, 하루우라라 역시 2000년대 초 경제 불황을 겪던 일본인들에게 '꼴찌들의 별'로 불리며 국민적 인기를 얻었다.

당시 고치 경마장은 시내에서 접근성이 안 좋음에도 장기간의 경제불황으로 경영위기를 겪고 있었다. 고치 경마장은 하루우라라를 '패배해도, 패배해도 다시 일어나 계속 달리는 경주마'로 홍보해 대성공을 거두었다. 하루우라라는 스타덤에 떠올랐으며, 하루우라라의 마권은 '절

대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정리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부적으로 입소문을 탔다.

국민적 인기를 끌면서 106전 출전 때는 일본 중앙경마의 최고 기수 다케 유타카가 기승하기도 했다. 결과에 이변은 없었지만 그 경주를 보기위해 고치 경마장에 약 1만3000명의 팬들이 입장했다. 마권 매출도 사상 최고액을 갱신해 고치 경마장은 폐업위기를 넘겼다.

하루우라라는 은퇴 후에도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70명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하루우라라회'의 회비로 하루우라라의 양육비를 충당하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경마계인 '우마무스메'의 인기와 더불어 재조명 받고 있다.

● 코리아헌터, 역대 최다 출전기록에 도전

코리아헌터는 3월 28일 10번째 생일을 맞았다. 통산전적은 117전 2승. 2월 13일 부산경남경마공원에서 열린 1200m 경주

에서도 11마리 출전마 중 11위를 기록했다. 승률이 2%도 채 되지 않지만 첫 데뷔인 2013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출전기록을 쌓고 있다. 현재 한국경마 최다출전 기록은 80년대 백작호가 세운 129전. 코리아헌터의 페이스를 감안하면 연말쯤 새 기록을 세울 전망이다. 경주마가 평균 5세를 전후로 은퇴하기 때문에 10세를 넘은 코리아헌터의 현역 도전은 한 경주 한 경주가 역사가 되고 있다.

햇수로 7년째 코리아헌터를 맡고 있는 이정표 조교사의 애정도 남다르다. "체구가 큰 말이 아니지만 영리하고 꾸준함이 통련의 비결"이라며 "잔부상이나 아픈 적이 거의 없었던 말인 만큼 '보물단지'처럼 소중한 말"이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코리아헌터는 오늘도 출전 준비에 여념이 없다. 희망적인 건 최근 경주에서 2월 경주보다 기록이 3초나 줄었다는 것. 박수 받는 꼴찌의 질주는 현재진행형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김우남 마사회장, 스포츠 선수단 지도자 간담회

김우남 한국마사회 회장은 소속 선수단 지도자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3월 28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마사회 유대단 이경근 감독, 탁구단 한정화·최영일 감독, 승마단 전재식 감독이 참석해 도쿄 올림픽을 비롯한 국내외 대회 출전 준비와 선수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 회장은 선수단 감독들에게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위축되지 말고, 본연의 임



김우남 마사회장

무에 최선을 다해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선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경기력 향상뿐 아니라 국민을 위한 재능 기부와 건강한 스포츠맨십 확산, 승마의 대중화 등을 위해 선수단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기자

함완식 기수, 후보생 '슬기로운 기수생활' 특강

한국경마 영예기수인 함완식 기수가 3월 25일 경기도 원당의 한국마사회 경마아카데미에서 기수 후보생들에게 특별강의를 했다. 1998년 데뷔한 함완식 기수는 꾸준히 두 자릿수의 승률을 유지하고 있고, 대상경주 트로피도 10번이나 들어 올렸다. 2015년에는 기수 최고의 명예인 영예기수에 올랐다. 함완식 기수는 강의에서 체중 관리법, 치열한 경쟁에 임하는 마음가짐 등을

소개했다. 그는 "치열한 승부의 세계인 기수 생활을 즐거운 마음가짐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은 교육기간에 건강하고 튼튼한 정신과 신체로 다듬고 만드는 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새내기 기수들의 현지 적응을 위한 '선배와의 경마 특강'은 지난해 문세영 기수를 시작으로 영예조교사 하재홍 조교사, 함완식 기수로 이어지고 있다. 이수진 기자

'포커 레전드' 꺾은 최창호씨, KMGM 홀덤페스티벌 1R 우승

위클리 홀덤스타

'올인' 실제인물 차민수 회장 제압
KMGM 시흥정왕점 시드권 획득
"진짜 우승할 줄은...아직도 얼떨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본선 일정이 연기됐던 'OB맥주배 KMGM 홀덤페스티벌 1라운드' 파이널라운드가 마침내 열렸다. 마지막 헤드업(Head's Up) 최종 결승에서 불만 남은 상황에서 남은 두 인물은 드라마 '올인'의 실제인물로 잘 알려진 포커계의 레전드 차민수 이사벨스포츠회장과 홀덤을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아마추어 최창호(KC)씨였다.

"차 회장께서 프리플랍 올인으로 강하게 나오시는데 제가 칩이 더 많은 상황이라 풀

을 받았습니다. 제 핸드는 9, 7 수잇(Suite) 두 장의 카드가 같은 모양이었었는데 사실 올인 콜을 받을 상황은 아니었죠."

차 회장의 핸드는 A, Q 오프스웃(Off Suit) 두 장의 카드가 다른 모양)로 7대 3 정도로 승리 확률이 높았다. 하지만 최씨는 4배 가까이 칩이 많았기에 상대의 콜을 받았다. 최씨는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All-in or Fold' 전력을 펼치는 상대의 올인 핸드를 확인하고 싶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결국 플랍 미스, 턴 미스, 마지막 리버에 7이 떨어져 최종적으로 최씨의 승리. 최씨는 "진짜인가 어리둥절한 마음도 들었고, 지역에서 시드권 딸 때보다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고 밝히며 우승 순간을 기억했다.

OB맥주배 KMGM 홀덤페스티벌 1라운드 우승자 최창호씨는 KMGM 시흥정왕점, 인천논현점 핸디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대

회의 시드권은 KMGM 시흥정왕점에서 획득했다. 최씨는 "지역에선 참가자들이 모두 익숙하고 서로의 플레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쉽지 않았다"고 했다.

최씨는 수원인계점에서 250명 중 50명 컷오프로 본선을 통과했고, 부산 문현스튜디오에서 열린 결승에서는 초반부터 전체 칩리더로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칠 수 있었다. "파이널테이블을 앞두고 16명 두 테이블 남았을 때부터 핸드가 좋지 않았는데 블러프를 시도하는 등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펼친 것이 주효했다"는 그는 "차 회장님과 대결해 진짜로 우승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했다.

최씨는 "아직까지 프로활동이나 직업으로 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대회들도 진지한 마음으로 참가해 좋은 취미이자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홀덤 유저 생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도경 객원기자 revolej@hanmail.net



'OB맥주배 KMGM 홀덤페스티벌 1라운드' 파이널라운드 최종 우승자인 최창호 씨가 기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최씨는 마지막 헤드업에서 포커계 레전드 차민수 이사벨스포츠회장을 따돌렸다.

사진제공 | KMGM

●스코어보드

▲KPC 메인이벤트 새틀라이트 우승자
3월 26일 안산중앙 최성민, 인천송도 이지훈, 세종 나성 함형재 / 27일 서울노원 신재식, 인천만수 전성배 / 28일 하남미사 김보현, 청주용량 김민섭, 서울건대 유혁 / 29일 시흥정왕 한지훈 / 30일 수원영통 안성빈, 인천논현 양세훈 / 31일 화성동탄 박석원, 고양 화정 노현래, 인천부평 김성균, 천안두정 양경준
▲OB몬스터스택 새틀라이트 우승자
3월 27일 인천송도 정재운, 분당정자 정현수 / 28일 서울사당 김재민, 서울건대 허성진, 울산삼삼 이서영 / 29일 인천만수 박지환, 서울대림 정영민

●이벤트 예고

▲KPC 메인이벤트 새틀라이트 예정 매장
4월 2일 안산상록수, 의정부, 부천상동, 김포구래, 충북제천, 구미중앙 / 3일 강원춘천, 서울논현, 서울청담, 부산동래 / 4일 강원원주, 부산해운대 / 5일 안양법계, 인천만수, 남양주다산, 구미중앙 / 6일 광명철산, 하남미사, 인천구월 / 7일 안양1번가, 일산라페스타, 인천청라, 구미중앙 / 8일 안산중앙, 구리수택, 인천송도